

농촌교회 전망에 대한 소고(小考)

박 정 도 (목사, 충북 보은 회인중앙교회)

1. 개요

우리 나라는 앞으로 농촌을 다시 살려야만 나라도 삽니다. 급속한 산업 사회화함에 따르고 공업위주의 도시중심정책으로 인하여 지금의 농촌실정은 그야말로 황폐화됐고 도시집중 정책으로 인하여 젊은 인력은 말할 것 없고 노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전무한 상태여서 농촌은 무력화되어 있으나 국가차원에서 다시금 농촌을 살려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나라같이 자연자원은 부족하나 자연환경이 농업화 하기에 적합한 나라에서 농촌을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이 나라는 전망없는 지리 멸렬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 뜻있는 이들의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우선은 도시중심의 공업위주로 일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나 먼 장래를 보는 안목에서는 반드시 우리 나라는 농촌을 살려야만 합니다.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먹고 사는 인간은 반드시 땅을 살려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연질서 차원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현실은 공해로 인하여 공기와 물이며 온갖 자연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이제는 다시금 농촌을 다시 살리자는 운동이 요원하게

전개되어야만 하며 그리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농촌교회도 언젠가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며 너도나도 농촌교회로 향하는 운동이 전개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개척한다면 으레히 도시 중심개척을 생각했으나 앞으로는 농촌지역에서도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리라고 믿습니다. 이는 시간문제요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그리하여 목회자들이 농촌교회로 가야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머지않아 현실화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우리 나라도 농촌이나 도시나 모든 여건이 별차별없이 조성되어 농촌에서 살면서도 조금도 불편없이 살 때가 올 것이며 교회도 점차 균등화되어서 모든 편의시설이나 문화적인 면도 균등한 상태로 발전할 것이니 오히려 농촌지역이 공기나 물이나 인간성 회복 면에서 앞서가는 면이 될것이기에 농촌이야말로 현대인의 이상향으로 인식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을 믿습니다.

2. 농촌목회 현장에서 본 농촌의 현실

현실 면에서 볼 때 농촌은 외적 면에서 불리한 조건과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에 비긴다면 문화면, 교통면, 교육면 등 제반조건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나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면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촌교회는 우선 교인수가 적습니다. 그나마도 노약자 중심적인 면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자립도 면에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이 같은 외적인 조건은 모두가 인간적이며 신앙생활의 본질이 영혼구원에 있다면 오히려 영혼을 성장케 해주는 제반조건은 농촌교회 성도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농촌은 급격한 변동이 없으며 안정된 분위기와 단순한 생활환경에서 오히려 평탄한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교역자 문제

여러 가지 제반 취약점이 있다하나 제가 볼 때 농촌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교역자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농촌교회 교역자란 나이 많은 노년층이 많고 젊은이들은 일시적으로 경유하는 한시적인 자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교역자가 자주 이동한다는 점이 농촌교회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농촌교회는 대체로 3년 이내에는 교역자가 바뀌는 형편이며 그나마도 농촌목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목회함이 아니라 도시로 나가기 위한 일시적 준비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그러므로 농촌교회 성도의 신앙단계가 초보단계를 넘지 못하고 참 신앙생활화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신앙상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교역자가 자주 바뀌는 교회로써 어찌 단계적인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저절로 제기되는 문제가 농촌교회도 농촌교회를 위한 사명자로서의 교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신념의 하나는 일생을 농촌교회를 위하여 목회하리라는 교역자만 만날 수 있다면 농촌교회도 반드시 부흥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적어도 20년 내지 30년을 사명감을 갖고 목회한다면 반드시 농촌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2) 교회 자립문제

지역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현실 농촌지역은 어느 곳을 보나 아직도 씨족 사회의 뿌리가 깊고 토속신앙이 강해서 복음전파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며 또한 지역에 따른 전통적 사회관념이 자리잡고 있으면 역시 복음전파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오랜 기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복음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은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돕는다 하나 도시입장에서 2,3년 돕는 것으로 교회가 될 줄 아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단견이라고 사료되며 농촌교회가 불모지에서 개척을 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농촌 지역도 지금은 단순한 농사가 아닌 특수작물 등 수준 높은 농업이 개발됨으로 지적 수준이 높은 인적 자원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같은 실정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하리라고 볼 때 농촌교회도 15가정 내지 20가정이면 지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30가정 이상만 된다면 안정권에 들만큼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같은 기간이 약 10년 이상은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3) 농촌교회 성도들의 다짐

현실 농촌교회의 교인들 자신부터가 할 수 없이 농촌에서 살지 가능하면 도시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러나 교인 스스로가 농촌에서의 삶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의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농촌교회는 유년부와 학생회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음은 계속적으로 도시선호사상이 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중학교부터 인근도시로 보내어 공부하게 하려는 부모들의 향학열로 중학생 때부터 농촌교회를 떠나 있는 실정이며 중학교를 졸업하면 70%는 대도시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니 그곳에서 가까운 교회로 나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100% 도시로 나가야 대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농촌교회출신 교인은 반드시 주일이면 본 교회로 출석하는 정신으로 교육하여 본교회사랑 정신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인이 내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된 본 교회 정신으로 기른다면 비록 먼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도 주일만은 본 교회로 출석하는 신앙관을 길러준다면 어느 정도 농촌교회를 떠나가는 교인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도시의 교회는 농촌교회에서 자라난 교인을 앉아서 영입하여 교회마다 수적 성장을 갖는 바 농촌교회는 어려서부터 길러낸 교인이 성장하자마자 도시로 나가게 되니 노력은 농촌교회가 하고 성장은 도시교회가 하게 된다는 역설적 현상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3. 농촌교회 목회의 특성

저는 일찌기(30대 초) 도시목회에서 말할 수 없는 회의와 절망감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서울시내 권에서도 목회를 해보았고 소위 대도시라 할 수 있는 곳에서도 여러 해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도시에서는 참 목회다운 목회는 할 수 없음을 스스로 느낀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 속에서 경쟁의식으로 목회를 하게 된다는 현실 속에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남의 교인도 못 데려와서 한이지 할 수 있다면 다른 교회의 교인도 받아드림으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을 볼 때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수한 교회를 만들려면 농촌목회를 해야되겠다는 스스로의 결심에서 저는 농촌목회의 길을 택했으며 농촌교회의 순수성과 단순성에 매료되어 지금까지 농촌을 떠나지 않고 목회합니다. 농촌교회는 사람이 적고 순수한 사람들이 그래도 도시보다는 낫다라는 신념으로 목회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면에서라면 어느 누가 도시 목회를 마다 하겠습니까만은 농촌목회는 경쟁 안해도 되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내게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한 심정으로 살아감은 더 없는 낙인가 합니다.

1) 사명감의 충족지으로써의 농촌목회

교회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얻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말할 때 성도를 양육하는 목적은 영육(靈肉)간의 성장을 도모함으로 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육성함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교회는 사명자로 하여금 직분을 주어 지도하고 인도하는 교역자인 목사요 전도자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도의 생명인 신앙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교역자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자라야 하는 바 소위 성직자의 본분은 성도의 영혼을 길러주는 것이 그 본래의 사명이라고 사

료됩니다(벧전1:9).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농촌목회를 해야만이 그 이상(理想)을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수함이 있어 복잡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게되는 도시인보다 평범한 삶을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하기 때문에 거짓이나 모략이나 정략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명예욕이나 영광심도 없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목회자 자신도 명예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교회 안에서 믿는 일에 전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연인으로써의 사생활에도 단순 순수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속에서의 삶이야말로 평안함과 심령의 기쁨에 이를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인가 합니다.

2) 참 진리추구의 요람으로써의 농촌목회

목회자는 먼저 자신을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신령한 진리추구의 구도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바 이 같은 진리추구의 도장으로써 조용한 농촌교회에서 이를 충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복잡한 온갖 권모술수며 정략적인 계략만이 판치는 환경에서는 도저히 자신을 온전히 만들 수 없다고 볼 때 도시와 농촌의 격차야말로 차이가 큼을 체험한 자는 인정할 겁니다. 눈을 뜨면 펼쳐지는 하나님의 자연 속에서 듣고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생활에서 얻는 깊은 체험적인 삶이야말로 저절로 찬양과 감사와 감격찬 세계로 인도해 주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고요와 적막의 심연으로 인도함 받는 농촌만이 주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평생을 조용한 환경 속에서 목회한 저는 이젠 소위 대도시에서 목회하라 해도 할 수 없는, 농촌에서만 살 수 있는 적응자가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농촌목회자는 틀에 박힌 듯한 격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유자적하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목회하는 삶,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성도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일하면서 도우면서 함께 먹고 호흡하면서 살면서 수시로 믿음을 격

려해 주면서 믿는 일이 생활이요 생활이 바로 믿음과 연결될 수 있는 삶의 현장임을 만끽하는 삶. 이것이 농촌목회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인 것을.

3) 목회자의 자유함을 소유할 수 있는 농촌목회

농촌목회를 하다보면 소위 세파에 휩쓸려 사는 현대인의 힘든 삶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심정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라 하신 전도자의 말씀의 참뜻을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농촌목회자의 삶이라고 봅니다. “나는 참 자유인이다”라고 부르짖고 싶은 삶이 농촌목회자의 삶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평소에 동역자들의 애처로운 삶의 모습을 느끼면서 긍휼의 심정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느 곳으로든지 갈 수 있고 내 심령에서 인도하는 대로 갈 수 있음에 자유인의 참뜻을 만끽하며 삽니다. 오늘의 동역자들 특히 소위 도시목회자들의 모습에서 처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느끼면서 애처로와 합니다. 왜 아무 데서나 어느 곳에서나 목회하지 못합니까? 순전히 육신의 조건만으로 살아가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소위 큰 교회를 맡은 이들은 그보다 못한 곳으로는 갈 수 없는 부자유함. 명예와 영광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애쓰는 애처로운 모습이며. 체통이니 체면이니 하는 굴레 속에서 부자유한 모습이며. 농촌목회자야 그것들과는 아무런 관계없어도 어느 누가 판단한단 말인가? 참자유인의 삶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시목회에는 너무나 교회가 많다보니 교인을 유인하는 교인쟁탈전에 몰입하게 됨은 죄를 짓는 행위로서 묵과할 수 없는 목회자의 범죄라고 생각할 때 농촌목회에는 그같은 쟁탈전을 안해도 되니 얼마나 자유한가? 오히려 시간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갖고 기도하며 말씀연구하며 영성을 기르는 시간적인 여유 속에서 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곳도 바로 이곳이기에 나는 농촌을 사랑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는 동역자들을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대우

받고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지는 모르나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임을 감지할 때마다 지금의 나는 너무나도 축복 속에서 목회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념껏 내 신앙관으로 가르치며 자유함과 심령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음에 이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농촌 교역자여!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삽시다.

4.결어

『농촌과 목회』 책자를 통해서 말단에서 목회하는 부족한 중도 평소에 간직했던 목회자의 소신을 발표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표현하고 싶은 목회관도 얼마든지 있어 종종 발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육신의 연륜도 쌓여 목회자로서 선배의 입장에 서고 보니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후배 동역자에게 주고 싶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시다만 평소 만날 기회가 적고 더구나 피차의 심정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어려운 것을 느낍니다만 우리 다 함께 우리 농촌 목회자를 위한 『농촌과 목회』 지를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이 쉽고도 어려운 것이어서 우리들 설교자들은 말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지만 다른 이웃들에게 글로써 속 것을 발표할 수 있기엔 어려운 일임을 압니다. 그래도 우리들 농촌 목회자를 위한 길이 있음에 위로를 받고 또 하나의 동역자를 만나는 기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